

# 코로나19 극복 '전국 소비 붐' 합류

### 도내 상점가 14곳,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여... 세일 행사 등 자체 프로그램 다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민·관 협력의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해 전국적 소비 붐을 조성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시장경영바우처(공동마케팅)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상점가(이하 전통시장) 14곳(불암1이)이 동참 중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세일 행사로 소비자들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여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를 통해 재미와 실속, 보람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의 유입을 통한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 시장별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전국 공동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이벤트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몰소 실천하는 고객들을 위한 '집콕·시장콕(cook)' 이벤트가 있다. 외식보다는 집밥을 선호하는 고객

들에게 요리 메뉴와 요리법을 공시하고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한 후 구매 영수증과 직접 요리한 음식을 시장(www.singear.or.kr)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면 평가를 통해 브랜드K 자이클(조리기구)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또다른 재미있는 이벤트로는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인 '육포기와 장보기'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벤트 페이지에 매일매일 구매할 물품을 공시하고 해당 상품 구입 영수증과 상품 사진을 올리면 매일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과 10일 이상 참여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 공동으로 할인 판매도 진행되는데,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8개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전국 총 1,210개 점포가 10%~40%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젊은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청년상인 제품 100개가 온라인 쇼핑물 11만가를 통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한 전통시장 현장에서도 5만원 이상 결제해 구매한 고객에게 금액대별로 최대 2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페이백 행사'와 '폭풍 할인' 및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 시장을 찾는 고객의 장바구니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는 행사명에서 착안한 '동행' 이벤트도 열린다. 전통시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덕분에 쉼'이라는 이벤트를 마련해 동행세일 기간 고객들이 구입한 상품 영수증을 합산해 목포 금액 달성시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전통시장의 각종 상품을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전달한다.

그리고, 전통시장별로 특색 있는 이벤트도 마련되는데, 군산구도심상권활성화구역은 2030년대 마켓로드 패션쇼, 메이크업 및 코믹장보기체험 등을, 전북대상점가는 게임존 등 체험이벤트, 플라마켓 등을, 전주모래내시장은

'추억속으로'라는 주제로 공연, 전통놀이, 레크레이션, 경품추첨 등 다양한 고객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아주 특별한 시도도 함께 이뤄지는데,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를 전통시장에도 적용해보는 시도의 일환으로, 최근 유통업계에서 각광 받는 라이브커머스가 전국 6개 광역시도에서 진행되고, 전북지역에서는 7월 4일 전주남부시장의 2개 점포가, 7월 5일에 모래내시장의 2개 점포가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제품 판매 및 홍보에 도전하며, 해당 영상은 '가치샵시다 플랫폼(https://v.dongbannmall.com)'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전통시장별 행사 일정과 내용, 온라인 전통시장관과 청년상인 제품 할인 정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시장 이벤트 홈페이지인 시장(www.singear.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새농민조합장협의회

### 창립총회 개최

#### 초대회장으로 유덕근

#### 고창농협 조합장 선출

한국새농민조합장협의회 창립총회가 지난 29일 농협중앙회 본관(서울)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새농민조합장협의회는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중 새농민상 수상자 출신 조합장 63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한국새농민 조합장협의회는 조합장들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청취해 새농민운동의 확산보급을 통한 후계 새농민 육성업무와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발전에 이바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은 창립선언문에서 "농협운동의 근본이념과 함께하는 자립, 과학, 협동의 새농민 이념을 살려 새농민상 수상 조합장들이 농협사업과 새농민운동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은행, 올해 재난이재민

### 긴급구호키트 나눔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30일 전주시 장동 소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서 2020 재난이재민 긴급구호키트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김성철 부행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임재성 구호복지팀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담요, 의류, 일용품 등이 담긴 구호상자와 부식품, 가스렌지, 주방·취사용품 등이 담긴 포장대로 구성되는 25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키트 100세트를 제작했고, 향후 재난이재민 발생 시 직접 방문을 통해 긴급구호키트와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지난 30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생산자연합회, 12개 민간업체와 '과수 신제품 시장 인큐베이팅(지원)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비대면으로 치뤄졌다.

# 우리 과수 신제품 안정적 시장 정착 돕는다

##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생산자연합회 등과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추진 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우리 과수 신제품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돕고자 생산자, 유통·가공·수출업체와 힘을 합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프로젝트 책임 기관으로 푸드 브랜딩·마케팅 전문가와 함께 시장 평가와 각 업체의 업무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제품 시장 인큐베이팅(지원)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과 제주, 나주 등 전국 4곳을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연결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제품 과일은 생산량이 적고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 과일을 생산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유통과 판매망 확충이 절실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업체와 생산자연합회는 앞으로 신제품 과일의 생산·

유통·가공·수출과 브랜딩·마케팅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프로젝트 책임 기관으로 푸드 브랜딩·마케팅 전문가와 함께 시장 평가와 각 업체의 업무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통·수출 과정에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생산자연합회는 생과일과 가공용 냉동 과일을 제공하고 유통·가공업체에서 과일 구매 후 주스 등 가공품 개발을 추진하며, 판매업체는 가공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수출업체는 해외 구매상을 발굴하고 수출과 해외 시장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약을 맺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도 국내 과일의 절반 가까이가 유통되는 도매시장에서 경매사·중도매인을 대상

으로 우리 품종을 알리는 교육·홍보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소규모 업체가 진행한 국내 육성 복숭아와 플럼코트의 가공유통·판매업체와 생산자연합회, 푸드 브랜딩·마케팅 전문가의 만남으로 이뤄졌다. 특히 유통·가공업체에서는 독특한 맛과 향기를 지닌 플럼코트가 최근 커지고 있는 국내 착출 과일수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정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신제품 과일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생산뿐 아니라 유통·가공 분야가 상호 협력하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도내 중기 126곳 7월 업황·경기전망지수 82.5p

### 제조업 84.3p로 전월과 동일

### 비제조업 80.4p로 3.5p 하락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 대비 1.6p

하락한 82.5로 소폭 하락곡선을 보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에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7월 경기전망은 84.3으로 전월과 동일한 반면 비제조업은 3.5p 하락한 80.4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건설업의 경우 16.7p 상승한 91.7로 강세를 보였으나, 서비스업은 79.0으로 전월보다 6.0p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을 살펴보면, 내수판매

(82.9→80.6)와 영업이익(83.6→80.2)전망은 각각2.3p와 3.4p 하락했고, 수출 전망은(66.7→61.3) 전월대비 14.6p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여객열차인 교통수준(100.8→100.0) 전망은 0.8p 하락해 다소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7월의 중소기업의 경영여로(복수응답)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81.7%), '자금조달 곤란'(27.8%), '업체간 과당경쟁'(24.6%), '인건비 상승'(20.6%), '인력확보곤란'(10.3%), '원자재 가격상승'(6.3%)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LX는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지점번호 지킴이'를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 국민과 '안전사각지대' 해결

## LX, 행안부와 '국가지점번호 지킴이' 발대식

국민소통과 참여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국민안전사각지대 해결에 나선다.

LX는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지점번호 지킴이'를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가지점번호'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산악지역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행안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한 번호판으로, 전국적으로 약 6만 개가 존재한다.

이날 위촉한 260여 명의 '국가지점번호 지킴이'는 국가지점번호와 도로명주소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활동기간은 내년 6월 까지며, 현장 활동에 필요한 세부 매뉴얼 교육은 코로나 19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다. 지점번호 지킴이들은 국가

지점번호관 훼손 신고와 국가지점번호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제안, 대국민 홍보와 활용사례 전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LX는 지킴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고, 우수 지킴이에 대해 연말 도로명주소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전국 지킴이를 대표해 위촉장을 받은 대전시 유성구 등산동회 산악대장 오경진씨는 "등산을 하면서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지킴이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택진 LX공강정보본부장은 "국가지점번호는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토안전의 신호등"이라며 "지점번호지킴이 운영을 통해 국민안전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 청년社長 프로젝트 참여업체 모집

### 도·경진원, 15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전라북도 청년社長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7월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전라북도 청년社長 프로젝트'는 청년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사업준속 및 성장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구조적 내실화 및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내 2년 이상 사업영위중인 청년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연간 3000여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홍보, 포장재개발, 판로개척, 시설개보수, 교육 참가 등이며, 이 외에도 지원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진원은 지난 2월부터 매일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을 실시, 총 4회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분야별 24업체(홍보 9업체, 포장재개발 6업체, 판

로개척 1업체, 교육참가 2업체, 시설개보수 5업체, 기타 1업체)를 선정했다.

작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모집·선정·지원이 월별로 진행되며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참여업체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원효율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아, 매회 많은 신청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평가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인 청년소상공인을 고려하여 비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jbs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전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117-1308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 글렌우드프라이빗에쿼티·맥쿼리자산운용 등 5곳

국민연금공단 자금운용본부는 2020년도 국내 사모투자 분야 PEF 위탁운용사로 총 5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자금운용본부는 지난 3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과정 등을 거쳐 글렌우드프라이빗에쿼티, 맥쿼리자산운용,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엔베스트먼트, 제이케이엘프너스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의 각 펀드는 투자 기간 5년, 펀드 만기 10년을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금운용본부는 총 8,000억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

다. 국민연금은 2020년 4월 말 현재 기금 전체 자산의 12.4%(인 89조9,000억원 상당)를 사모투자,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2021년 말까지 기금 전체 자산의 13.2%, 110조 원 상당액(투자잔액 기준 예상액) 수준으로 투자 확대할 계획이다.

안효준 자금운용본부장은 "앞으로도 대체투자 확대 등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